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능계)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인문·체능계 문제지는 총 1장 2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가]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다. 하룻길에 읍내 아버지 사무실에 갔다가 사환으로 있던 동네 형을 만났다. 아버지는 안 계셨고 형은 그때 마침 라면을 끓여 도시락과 함께 먹으려는 찰나였다. 꼬불꼬불한 국수 모양이 신기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 거기서 풍겨 나오는 냄비는 읍내에서 십 리 길 가까운 시골에 사는 내게는 도시적이다 못해 이국적인 느낌마저 불러일으켰다. (중략)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밥을 꼭 눌러 채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분식집에 모였다. 그러면 주인은 미리 껍질을 벗겨 놓은 라면을, 역시 미리 스프를 풀어 끓여 놓은 냄비 속에 빠뜨렸다. 그러고는 시큼하고 커다란 단무지 세 쪽 아니면 네 쪽을 접시에 담아 냄비와 함께 가져다주었다. 식탁에 있는 고춧가루를 살짝 풀어 라면과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도서관에서의 한밤까지도 든든했다. 그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지,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를 지경이었다. (중략)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면의 맛이 잃어버렸다. 라면의 종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고 재료 역시 좋아졌지만 내가 찾는 그 맛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동안 나는 초겨울 빈 들에 구하기도 힘든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고 나가 끓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 보기도 했다. 또 어렵사리 분유 강통을 구해 젓가락을 넣다가 합선 사고를 내기도 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를 찾아 시장을 헤맨 적도 있다. 여러 사람의 자문을 얻어 이것저것 실험도 해 보았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는 성냥불만 닿아도 파르르 반응하도록 얇을수록 좋다. 스프는 미리 찬물에 풀고 그 물을 최대한 오래 끓인 뒤 면을 넣는데 뚜껑은 덮지 말고 면을 섞거나 뒤집지 않는다. 날씨는 추울수록 좋고 끓는 부분과 차가운 대기에 접촉하는 면이 공존해야 한다. 면을 넣은 뒤 최소한의 시간만 익히고 곧 먹어야 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한겨울에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와 같은 맛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전에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을 먹고 싶어 하는 거라고.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헛되이, 저 멀리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 [나]

1930년대에 미국 일리노이 주 시서로 시에 소개하고 있던 웨스턴 일렉트릭 사의 호손공장에서는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공장의 조명을 바꾸는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전제되는 이론은 조명이 밝으면 노동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 결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었다. 연구책임자였던 메이요와 그의 연구원들은 비용이 높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조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호손의 노동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한 그룹은 조명의 조도를 높였고 차츰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다른 그룹의 조명은 평상시 조도 그대로였으나 역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전제되는 이론에 반하는 결과에 의아함을 느낀 연구팀은 이번에는 한 그룹의 조명의 조도를 과감하게 줄였다. 이번에도 이 그룹의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나중에는 이 그룹의 조명을 아주 칙칙할 정도로 낮추었다. 노동자들은 달빛 아래서 일하는 것처럼 압박을 느끼고 짜증을 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산성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때로는 증가하기까지 했다. 특별히 두 사람의 노동자가 실제 최소한의 조명을 받으면서 아주 작은 방에 고립되었다. 이번에도 그들의 생산성은 감소하지 않고 지난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혼란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의아해 하며 연구를 되돌아보았다. 연구원들은 경영자와 함께 연구기간 동안 관심을 기울여 두 노동자 그룹을 선발했었다. 연구를 위하여 선택된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경영자가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동료와 잘 지내고 싶다는 욕망, 이른바 인간의 결합 본능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해와 그럴싸한 경영원칙을 토대로 한 추론의 논리를 쉽게 능가한다.”고 연구책임자 메이요는 논평했다.

### [다]

이렇게 소비를 유혹하는 광고에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회 심리가 녹아있다. 광고가 표출하는 이미지에는 시대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가짜 욕구나 새로운 유행을 아예 광고가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여기에는 광고에 숨어 있는 상품 미학이 한몫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남성

< 뒷면에 계속 >

용품 광고에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용품 광고에 남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카메라 기법이 무너지고 새로운 카메라 기법의 사용이 일반화된다. 화면을 거꾸로 가로지르는 모델의 다양한 몸짓, 마치 무채 썸 듯이 쪼개진 화면 분할, 러시아의 민속 인형이 인형 속에서 수십 개의 또 다른 인형을 토해 내듯이 화면에서 또 다른 화면이 계속 등장하는, 화면 속에서의 화면 탄생 기법, 또한 놀랄 만한 컴퓨터 그래픽의 위력과 충격적인 영화 기법이 과감하게 등장한다. 이제 수용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인정한다. 오늘날 이것은 하나의 문화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수용자의 심리가 그렇게 바뀌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혁명적인 표현으로 가득 찬 상품 광고에 더 많은 현금을 하게 되는 현상을 도외시하거나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다.

[라]

— 성장 비료 석교 공장은 연간 사십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夜陰)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수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에 출어(出漁)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샐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뭉치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아들놈이 넌 진정서가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지난 유월에 풍천 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시켜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의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했다가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마]

19세기에 이르러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식은 지각없음과 교양 없음으로 간주되었고 뚱뚱한 남자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 시기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뚱뚱한 남자들은 하나같이 명청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자신 있게 굴곡을 드러내는 일은 18세기 회화에서나 가능한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날씬함을 선호하는 풍조는 더욱 가속화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뼈가 드러나는 깡마른 체형이 여성몸매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을 빼려는 여성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제약회사는 여성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종류의 살 빼는 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약으로 인해 빠진 것은 여성들의 살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잔액이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자 하는 열기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출판계에서는 건강한 삶과 식생활을 다룬 책들이 19세기 말부터 출간되었고 서적 진열대에서 그 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몸매 관련 사업이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발전한 것도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다. 특수음료와 저지방 식품을 시작으로 헬스클럽에 이르기까지 이 부문에서 기업 수준으로 사업을 일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는 날씬한 몸매를 지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과시적인 경쟁이 끝없이 전개되고 있다.

[바]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 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중략)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중략)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 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딛고 선 땅이 우리 조상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땅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우리 종족의 삶들로 충만해 있다고 말해 주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들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라. 땅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땅 위에 닦친 일은 그 땅의 아이들에게도 닦칠 것이니, 그들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 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것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육망’을 핵심어로 하여 요약하고, 그 육망의 유사성을 논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바]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육망’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1,100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